

Date: 15 Tammuz 5786 (June 30, 2026)

Torah Portion: Pinchas

Topic: A Night in Yerushalayim

상변제(타미드)는 이스라엘의 매일 예배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되는 의식이 아니라, 야훼(YHWH)와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는 영원한 증거였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야훼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변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준비하고 한 어린 양은 저물 때(두 저녁 사이에) 준비할 것이요”(민 28:3-4).

미드라시는 이 상변제의 놀라운 효과를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예루살라임)에서는 그 누구도 죄를 품은 채 밤을 지새우지 않았다. 아침 상변제는 지난밤에 지은 죄를 대속했고, 오후 상변제는 낮 동안 지은 죄를 대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죄의 짐을 진 채 예루살렘에서 밤을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도다’(사 1:21)라고 기록된 바와 같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이 진술은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미드라시는 이 독특한 축복을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일까요? 상변제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바치는 반 세겔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출 30:11-16; 미슈나 세카림 4:1). 온 회중을 대신하여 드려진 제사였기에, 그 대속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든 모두에게 동등하게 미쳐야 하지 않을까요?

구르(Gur)의 랍비 아브라함 모르데하이 알터(R' Avraham Mordechai Alter)는 상변제가 지닌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대속의 영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개인의 속죄제(하타트)나 속건제(아삼)와 달리, 상변제는 개인의 희생 제사를 요구하는 고의적인 범죄를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변제는 사소한 허물, 불확실한 위반, 그리고 마음의 실패를 대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필요한 개인 제물을 바친 사람들만이, 상변제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대속을 통해 온전한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변제는 개인의 회개와 제사가 이미 시작한 바를 완성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랍비 심하 알터(R' Simcha Alter)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상변제의 대속적 공로를 공유했지만,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준비가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들은 성전의 거룩함, 제사장들의 섬김, 레위인들의 찬양, 그리고 야훼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몰입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방금 정결함을 얻은 죄로 다시 빠르게 되돌아가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부 환경이 제사가 상징하는 내면의 변화를 양육해 준 것입니다.

랍비 이츠하크 소로츠킨(R' Yitzchak Sorotzkin)은 변제의 또 다른 차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인들은 변제(올라)가 특히 최악된 생각과 마음의 은밀한 묵상을 대속한다고 가르칩니다(바이크라 라바 7:3). 이는 인류의 가장 큰 영적 투쟁 중 하나를 다룹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단 하루도 최악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바바 바스라 164b). 외적인 죄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면의 삶은 끊임없는 정결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상번제가 주로 마음의 은밀한 영역을 다루는 것이었다면, 미드라시의 선언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끊임없이 야훼를 향해 재조정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자는 엘로힘의 말씀을 마주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토라를 들었으며(신 33:10), 하늘로 올라가는 끊임없는 예배의 리듬을 목격했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거룩함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왜 마음의 정결함을 토라를 묵상하는 것과 반복해서 연결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솔로몬은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잠 2:10)라고 썼습니다. 다윗 역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여호와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라고 선언합니다. 부정한 생각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단순히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지혜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현인들이 가르치듯, "이 악한 충동이 너를 만나거든, 그것을 배움의 집(베이트 미드라시)으로 끌고 가라"(키두신 30b)고 했습니다. 마음은 비어 있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원리는 갱신서 (Renewed Covenant)에도 빛을 비추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상번제를 메시아(모시아흐)의 온전하고 영원한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로 제시합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과 달리, 메시아는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히 7:27; 10:1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영적 갱신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롬 12:2)고 권면하는 동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촉구합니다. 따라서 상번제의 지속적인 리듬은 반복되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야훼와 끊임없이 교통하는 삶 속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거룩함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모든 믿는자는 야훼께서 베푸신 대속의 사역을 공유하지만,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예배의 분위기를 가꾸는 자들이 그 대속의 가장 온전한 열매를 경험합니다. 용서는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야훼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양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도다"(사 1:21)라는 이사야(이샤야후)의 선언은 단순히 도시 자체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야훼의 임재가 거하는 처소가 된 마음을 그려냅니다. 사람이 그 영적인 "예루살렘"에 머무는 한—토라 안에서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는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한—상번제가 상징하는 정결케 하심은 내면의 사람을 계속해서 빚어갑니다. 상번제는 믿음의 삶이 어찌다 한 번씩 하는 회개의 순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향한 굴복, 갱신, 그리고 교통의 끊임없는 리듬을 통해 지탱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shalom.